

제106주년 노동절 주간 기획 제안서

발신 : 위원장

수신 : the other

96/4/20

1) 몇 주 동안의 고민(?)과 이런저런 논의 속에서 이번 노동절을 맞이하여 문화제를 연대-기획하게 되었다. 노동절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다들 대강이라도 알고 있으리라고 믿으며, 그렇다면 노동절이라는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. 일단은 사회 진보 - 급진 정치를 사고하는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테고, 더군다나, 우리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에 관한 논의가 (최소한 학내에서는) 부진하고, 그럼에도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, 성정치 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야 하지 않을까.

-여성 노동자는 이중적 탄압을 받고 있다.

- 공장장의 의한 성폭력과 노동자 동료들에 의한 성폭행은 거의 일상화된 문제라고 한다.

- 성별 간의 임금 차별 문제

- 자본의 논리에 의하여 구성된 근대적 핵가족제도와 여기에서 발생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....

-자본주의 사회에서 설정된 공과 사의 대립구도 속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, 육체적 압박감. 가사 노동과 일터의 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데, 가사나 양육의 문제는 여전히 여성이 담당해야만 하는 처지이다.

-‘공’의 부문에서의 노동은 상당히 ‘남성적인’ 것이다. 더군다나, 노동 현장이라는 곳은 더더욱 남성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. 여기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가. 여성들만의 문화?

-등등.....

the other는 ‘무슨무슨-주의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지을 수 없다. 어쩌면 그것이 성정치의 문제 의식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.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다. 즉,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룰 것인가 아니면 안 다룰 것인가의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.

the other는 여태까지 상당히 추상적인 수위에 지나치게 머물러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- 물론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였지만. 그것은 우리가 ‘성정치’라는 개념에 지나치게 매달려 있었고, 새로운 운동을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지 않은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다. 그 속에서 ‘현실적’인 문제들은 많이 간과되어 왔다고 생각한다. 연세지에 이러한 말을 썼다 - 나무는 보지 못하고 숲만 보는 것은 숲 속에 갇혀서 나무만을 바라보는 것 못지 않게 위험하다고.....여하튼, 몇 번 강조한 것이지만, 우리들만의 성정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. 결코 하나의 실체로 규정될 수 없는 ‘성정치’를 향하여 질주하지 말고, 우리가 순간순간 ‘성정치’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.....

2) 자료집

1. 총론 -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치는 문제들, 그리고 그 모순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삶에서 적나라하게 들어나는지

2. 가족에 대한 문제 제기 - 공과 사, 사회와 가정 등의 이분법 속에서의 성별 분업
3. 여성 노동자들의 실태 - 자료 분석을 통한 임금 문제, 성폭력의 문제, 가사와 양육의 문제 등

3) 문화제 행사

이 3가지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.

기획팀

---->전반적인 기획과 5/2 행사 판

총문-가족팀 (이론적인 접근 설명)

---->각 테마에 관한 전시판 만들기

노동자팀 (각종 자료를 통한 실태 고발)

아무래도 노동 부분에 집중이 가야하지 않을까.

각 팀에서 A4 한 장 정도의 글을 써서 그것으로 전시판을 만든다 - 모양있게 사진, 그림, 만화 등을 넣어서.....그 부분에 대한 판은 구 팀이 기획하고 담당하기. 기획단은 전반적인 틀과 다른 부분과의 교섭, 그리고 5/2일 행사를 기획한다.

4) 일정

비록 시험기간이긴 하지만, 틈을 내서 해봅시다....!

4월 20일 - 26일 : 자료 수집과 글 완성

5/2 행사 기획안

4월 26일 - 28일 : 전시판 완성

*4월 29일 1시 노동절 주간 선포식

4월 29일 - 5월 1일 : 5/2 행사 준비 완료

*5월 2일 : 성정치 광장

5) 재정

여전히 돈 돈 돈 문제

매달 회비 내자고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으나, 4월 회비를 10000원 씩 내고 (임시 재정 담당 : 가훈) 그것으로 이번 문화제를 치릅시다.

6) 이번 기회에 우리 슬리건 하나 만듭시다. 선거 정책 자료집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음!!